

무료입니다 - 하나씩 가져가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읽고 색칠하세요.

스무 번째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복음 10:38-42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옆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실 때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집에 머무르시곤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한번은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빴는데 마리아는 예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부엌에서 그녀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염려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도 부엌에서 일 할 시간은 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배우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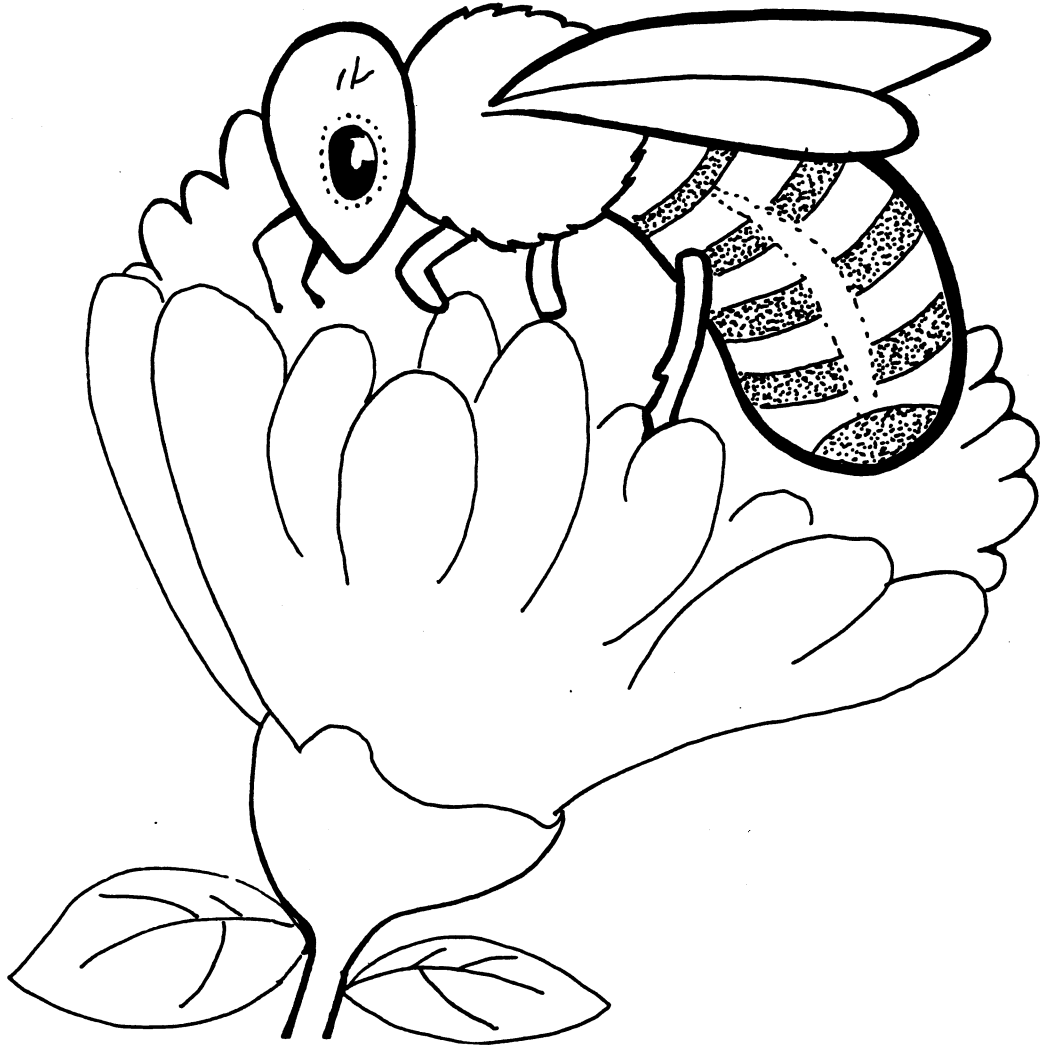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귀절 (외우세요)

누가 복음 11:28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동물들

벌



벌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곤충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거의 쉬려고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꽃이 자라게 하고 꿀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벌이 지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은 참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벌의 이야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시간을 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누가 복음 10:41, 42

(마르다가 부엌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